

“광주 촛불 이래서 평화”

광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처음 열린 지 한 달이 됐다. 광주 촛불집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했다. 광주 촛불집회는 격렬한 거리시위로 번진 서울과는 완전 판판이다. 주말에는 수천명이 모이지만, 보통 200~500여명이 참가하는 정도다. 분위기도 작은 축제를 보는 듯하다. 타지역 네티즌들은 '5·18 성지인 광주가 침묵하고 있다'며 의아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대다수 광주 시민들은 "광주가 왜 항상 나서야 하나"며 답답하지 않은 반응이다.

그렇다면 수십년간 금남로를 무대로 맞서왔던 노동운동가와 경찰 관계자가 본 광주 촛불집회는 어떨까. 노동운동 20년째인 정찬호(43) 민주노동당 광주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약육강식의 교육정책과 입시지옥이 중·

- ① 조직화 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 참여
- ② '광주, 정치적 이용 말라' 암묵적 합의
- ③ 경찰도 "과잉 진압 땀 폭력 부른다" 자제

고교생들을 촛불거리로 내몰았고, 이는 80년대처럼 '의식화' '조직화'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조용한 광주'에 대해 "80년 5월처럼 분노를 느낄만한 직접적인 '원인'과, 이를 규탄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여대생 군항복 폭행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다면 집회양상이 바뀌었을 것이 분명하고, 경찰도 이를 잘 알기 때문

에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광주에서는 '이명박=한나라당'의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의 여당이어서 시위대의 '표적'이 없다는 분석이다.

전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오병언(50)씨는 "87년 6월 항쟁을 베틀이 부대가 이끌었다면, 촛불집회는 중·

고생들이 기성세대를 거리로 불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시국을 6월 항쟁 초기와 비슷한 '도화선 정국'이라고 표현하며 "적당한 시기가 오면 광주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운동가들이 광주 촛불집회 분위기를 '일촉즉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반면, 30년 넘게 정보계통에서 근무한 경찰 A씨는 "각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A씨는 "광주가 나서서 침예하게 정당"의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의 여당이어서 시위대의 '표적'이 없다는 분석이다.

전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오병언(50)씨는 "87년 6월 항쟁을 베틀이 부대가 이끌었다면, 촛불집회는 중·

“사고는 어른이, 수습은 학생이...”

금남로 '소통의 벽'에 다양한 의견 걸려

'미 쇠고기 수입, 사고는 어른이, 뒷수습은 어린 학생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어른들!' '국민은 직원이 아닙니다. 사키면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다'

연일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 8일 오전 대형 게시판이 세워졌다. 가로 6m·세로 1.8m 크기의 게시판에는 정부의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1천600여개의 메모장이 붙어 있었다.

'소통의 벽'으로 이름지어진 이 게시판은 촛불집회 현장에 세워진 1.5m 높이의 '촛불' 조형물에 붙여져 있던 시민들의 메시지를 옮겨 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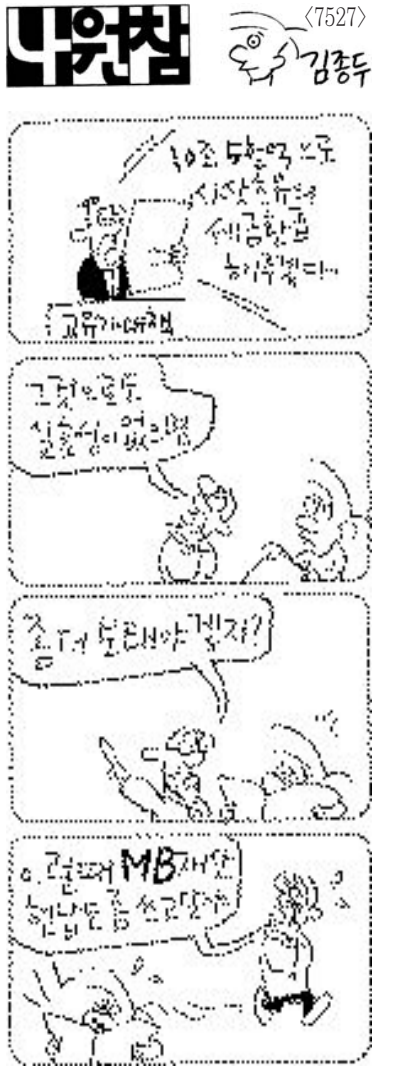
'소통의 벽'에는 남녀노소 다양

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겨있지만, 소망은 한결같았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자는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미 쇠고기 수입을 막아주세요. 찬성은 이 대통령 혼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왕정시대에도 국민을 우롱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했다' 등이다.

촛불집회가 시민참여형으로 변모하면서 특색 있는 문구도 많았다. '영여 공부 그만하고 국어 공부나 해라. 대화가 안 통하잖아' '대한민국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줄임말) 고마워 대통령' 등도 있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대규모 촛불 집회 광주 내일은 긴장

오는 10일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대규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예고돼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와 민주노동당이 개최하는 이날 집회는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열린 촛불집회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당사 항의 방문까지 계획돼 있어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10일 대규모 집회=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는 10일 광주에서 노동계와 학생,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전면 재협상! 국민주권수호! 이명박 정부 심판! 6·10 10만 촛불대행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본부도 10일을 '촛불항쟁의 날'로 선포하고 전 조합원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6시 광주공원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갖고 금남로로 행진할 계획이다.

전남대와 조선대학생들도 각 학교별로 집회를 갖고 금남로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불교계는 금남공원에서, 직장인들은 구 한일은행 사거리에서 집결한 뒤 금남로까지 거리행진을 벌인다. 여성단체는 이날 '아이와

함께하는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10일 촛불집회 참가단체의 예상인원으로 볼 때 최소 5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촛불집회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 전원이 금남로 일대를 돌며, 시민들에게 쇠고기 수입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전남도당까지 진출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전남지역에서도 여수, 순천, 목포, 해남 등 16개 시·군에서 이날 오후 7시부터 촛불집회가 열린다.

72시간 촛불집회 종료=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72시간 촛불집회'가 9일 밤 끝났다. 이번 촛불집회는 지난 6일 오후부터 시작됐으며 이날 밤부터 9일 밤까지 격렬한 가두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집회에는 매일 20만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참가해 지금까지 촛불 집회 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운집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지난 7일 밤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쇠파이프 등으로 전경버스 창문을 부쳤다.

한편 보수단체들도 이번 주 잇따라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양측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특별대책위가 8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 세운 '소통의 벽'. 이곳에는 1천6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어 썼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스파이더맨 절도범’

암벽 등반 취미 10대, 아파트 20층 털어

아무런 장비없이 20층 아파트까지 올라가 금품을 털어 '스파이더맨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교시절 암벽등반을 즐겨했던 김군은 20여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김군은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려고 아파트 1층 발코니에 설치된 추락방지 난간을 밟고 맨손으로 위층 난간을 올라갔다. 아무런 장비도 없이 아래층 발코니 하강을 시도한 김군은 위층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는 대담한 수법이었다.

암벽등반이 취미였던 김군에게 이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김군은 한 층씩 오르며 빈집이라고 확인되면 발코니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털었다. 김군이 2시간여 동안 10층 아파트는 8층·12층·17층·19층 등 모두 6개 구. 그러나 위험한 수법에 비해 훔친 금품은 20여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김군은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려고 아파트 1층 발코니에 설치된 추락방지 난간을 밟고 맨손으로 위층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는 대담한 수법이었다.

경찰은 8일 김군에 대해 특가법상 이단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음주운전 제 발 저린 도주

의경 매달고 도망친 30대, 잡고 보니 기준치 이하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의경을 차에 매달고 3km를 질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정작 음주측정을 한 결과 알콜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회사원 L(30)씨는 지난 7일 밤 10시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G에식장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했다.

L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있는 음주운전 전력자. L씨가 단속을 피해 역주행을 하며 도주하자 광주경찰 10(20) 일경이 승

용차 보닛에 매달렸다. L씨는 이때부터 광산구 산정동 S병원 인근까지 약 3km를 시속 120km의 속도로 질주한 뒤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0일경은 한 손으로 승용차의 선두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L씨의 도주 경로를 무전기를 통해 보고했다. 0일경은 손가락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L씨는 서구 쌍촌동 집에 숨어있다가, 다음날 새벽 차적조회를 통해 주소 파악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런데 음주측정 결과 L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43%로, 입건 기준치인 0.05% 이하였다. /광필기자 kps@

다중주택·상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반영
▶ 서울본사 : 02-3445-0943
▶ 광주본사 : 061-337-0571

경찰 앞서 자녀 때린 아버지 처벌 고심

○광주북부경찰은 8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를 때린 A(48)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 중.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12)과 아들(11)을 앞뒤로 한 뒤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한 차례씩 때린 혐의.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두 자녀가 말을 듣지 않자 관할 지구대에 신고한 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대신 야단을 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하자 자신이 직접 자녀를 때린 것.

○경찰은 A씨가 평소 만취상태에서 두 자녀를 자주 때려왔으며, 두 자녀가 광주 모 아동복지시설 관리대상에 포함돼있는 점으로 미뤄 검찰의 지휘를 받아 A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 /이종형 기자 galee@

2008 SUMMER 밴쿠버 영어캠프

2008 여름방학 국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캠프 기간: 7월 14일 ~ 7월 21일 (7박 8일)

▶ 캠프 장소: 밴쿠버 (캐나다)

▶ 참가 대상: 초·중·고등학교 1~3학년

▶ 참가 비용: 1,200,000원 (항공료 별도)

▶ 신청 방법: 전화 신청 (02-1234-5678)

▶ 문의처: 밴쿠버 영어캠프 사무국